

《書評》

Mass Communication Research

—Major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W. Phillips Davison and
Frederick T. C. Yu(ed.)

(New York; Praeger Publishers, Inc., 1974, 246 p.)

金 榮 熙

I

이 책은 副題에서 시사되듯이, 커뮤니케이션分野의 최근의 研究狀況과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바람직한 方向提示를 목적으로 편집된 것이다.

編者인 Phillips Davison과 Frederick T. C. Yu가 序文에서 밝힌 이 책의 발간경위에 의하면, 이 책 발간의 助言그룹은 1972년 컬럼비아大學夏期學校에서 가르쳤던 A. Barton, H. Gans, P.F. Lazarsfeld, G.E. Lang, W. Weiss, E. Katz 교수들이었다. 그후 1973년에 다시 각각의 記稿論文들에 대한 두차례에 걸친 討議(이 토론에는 前述한 교수이외에 E. Abel, K. Lang, W. McGuire, I. de Sola Pool, J. Robinson, C. Wright 등이 참가했다고 한다)를 거쳐 다시 修正補完하여 出版한 것이다.

이렇게 세심한 사전준비가 있었고, 이에 대해 助言을 한 學者들이 각 主專攻分野마다 미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망라되었다는 점에서, 이 책에서 우리는 최근의 미국에서의 매스·커뮤니케이션 研究傾向과 그 方向을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II

먼저 이 책의 體制와 構成內容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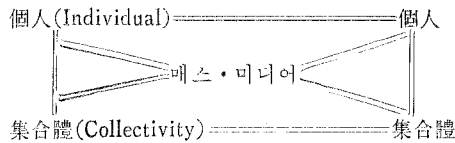
먼저 第一章은 編者共同執筆로 이 책의 體系를 세우고자 하였다. 여기서 이들은 먼저 지금까지의 많은 커뮤니케이션研究에서 方向(direction)과 각 研究의 相互連絡(continuity, relatedness)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 분야 主要研究問題에 대한 공통

적인 認識과 이를 포괄하는 理論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커뮤니케이션의 概念을 정리하여 커뮤니케이션 研究의 세 가지 중요한 要素로 個人의 퍼스널리티와 전체 社會를 연결시켜주는 커뮤니케이션 및 이들 要素 사이에 일어나는 相互作用에 의한 心理的 構造에 주목하였다.

이 세 要素를 바탕으로 <그림>과 같이 이 책의 基本構造를 위한 圖式을 提示하였다.

<그림>



이 模型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10개의 커뮤니케이션 過程을 지적한다.

- ① 어떤 個人으로부터 한 사람 또는 그 상의 個人에
- ② 어떤 個人에 대해 다른 個人으로부터
- ③ 어떤 個人으로부터 어떤 集合體에
- ④ 어떤 集合體로부터 어떤 個人에
- ⑤ 어떤 集合體로부터 다른 集合體에
- ⑥ 어떤 集合體에 대해 다른 集合體에
- ⑦ 어떤 메스·미디어로부터 어떤 個人에
- ⑧ 어떤 메스·미디어에 대해서 어떤 個人으로부터
- ⑨ 어떤 메스·미디어로부터 어떤 集合體에
- ⑩ 어떤 메스·미디어에 對해 어떤 集合體로부터

이상의 研究模型과 過程을 바탕으로 한 이 책의 體係는 총 10개의 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다음의 셋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個人과 메스·미디어間的 諸關係; 이를테면 사람들이 메스·미디어에 의해서 經驗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메스·미디어를 利用하는 方法은 어떤가의 문제들로, 이에 대해서는 제 2章과 3章에서 利用과 滿足의 研究 및 사람들의 퍼스널리티 形成과 社會化에 대한 影響問題로 취급하였다.

(2) 社會組織과 메스·미디어間的 諸關係; 예컨대 메스·미디어의 國家發展에 대한 影響이라든가 메스·미디어와 政府와의 관계 등으로 이는 각각 4, 5, 6章에서 다루고 있다.

(3) 特定の 메시지內容을 形成시키는 커뮤니케이션의 메카니즘과 技術의 相互作用 關係; 즉 미디어內部的 構造와 機能, 저널리스트의 役割, 미디어經營上의 決定이 內容에 주는 影響의 形態, CA TV 등의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技術에 의해 생겨나는 諸問題에 관한 것으로 이것은 7, 8, 9章에서 論하고 있다.

이상의 內容으로 이루어진 각 章의 題目은 다음과 같다.

1. An Attempt to structure the Field
2. Uses of Mass Communication By the Individual (個人의 媒體利用)
3. Mass Communication and Socialization (社會化)
4. Functions of Mass Communication From the Collectivity (커뮤니케이션과 組織)

- | | |
|--|-------------|
| 5. Mass Communication and the Nation State | } —(政府와 媒體) |
| 6. Mass Communication and the Political System | |
| 7. Professional and Organizational Situation in the Mass Media | } 媒體社會學 |
| 8. The Management of Mass Media | |
| 9. Implications of New Implications Technology | |
| 10. Some Priority Areas For Future Research | |

그리고 마지막 章에서는 다시 전체적인 問題提起를 상기시키면서, 앞으로의 研究에서 보다 우선권을 주어야 할 研究領域을 5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즉, 첫째 매스·미디어는 어떠한 社會의 또는 個人的 欲求가 만족되는데 有用한가? 각 社會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과 個人的 媒體사이의 바람직한 關係는 무엇인가? 의 문제들.

둘째, 매스·커뮤니케이션과 對人間的 커뮤니케이션의 相互交換(interface) 및 特定커뮤니케이션媒體가 다른 종류의 媒體로 대체, 보충될 수 있는 程度에 관한 문제들.

셋째, 가장 효율적인 媒體混合使用(mix of channels, media mix)에 관한 문제.

네째, 媒體의 役割履行의 基準은 어떻게 정할 수 있는가? 특정한 役割修行에 알맞은 미디어形態와 內容은 무엇인가? 에 관계된 일련의 問題들.

끝으로 경비(cost) 즉 金錢上的 問題뿐만 아니라 人的資源의 背置, 技術에 관한 문제가 포함되는 媒體經濟學에 관한 관심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밖에도 기존 研究成果를 포괄하는 理論의 맥락에서의 歷史의 考察의 필요성, 美國外地域에 관한 研究, 새로운 미디어체계의 考察등 다양한 연구주제를 제시, 언급하였다.

한편 後記로 Forrest P. Chisman의 간단한 글인 “Another View of Research Priorities”에서 10章에서 다룬 문제와 다소 중복되기도 하나, 간단하면서도 매스·커뮤니케이션 研究의 흐름과 그 문제점을 비교적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다.

먼저 그는 최근의 매스·커뮤니케이션 研究의 傾向을 크게 셋으로 요약하였다.

첫째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단순한 反應者로서의 고립된 個人에 관한 研究에서 社會的, 對人關係의 狀況의 影響力을 중시한 이른바 “co-orientation research”學派와,

둘째, 매스·커뮤니케이션의 效果를 결정하는 能動的 參與者로서의 個人에 관한 研究 즉 “uses and gratifications approach” 및,

셋째의 個人次元의 態度, 意見에 관한 研究에서 個人이나 集團이 그들 態度와 意見을 形成하게 되는 情報環境(information environment)에 대해 매스·커뮤니케이션이 행사하는 影響力의 諸方式, 이른바 政治領域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agenda-setting functions”에 관한 일련의 研究를 들고 있다.

이러한 學問的 追勢는 바람직하며 고무적인 일이라 일단 前提하고나서 그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研究觀點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첫째, 態度나 知識, 情報受容에 있어서 매시·미디어가 어떠한 意味를 갖는가에 대한 研究의 重要性만큼이나 social sentiments——신뢰, 분노, 동정, 존경등——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態度 특히 政治的 態度에 관한 매시·커뮤니케이션의 效果를 설명하는 보다 精細한(fine-grained) 研究가——具體的이고 상세한 研究方法——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셋째, 상세한 研究와 함께 巨視的이며 폭넓은 視野(broad-gauged)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커뮤니케이션이 포괄적 체계로서의 社會現象이라는 점에 대한 認識에 근거한 이러한 接近方法은 커뮤니케이션 體系에 새로운 型(typology)의 確立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넷째, 상이한 여러 종류의 커뮤니케이션體系의 그 有用성과 能力에 관한 比較研究(구체적으로 情報컴페인에서 어떠한 媒體混合使用(mix of media)이 效率의인가등의 문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政府나 다른 形態의 커뮤니케이션體制의 政策決定의 基本을 제시할 수 있는 研究——政策聯關問題가 요청된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Fishman은 커뮤니케이션 研究에서 interdisciplinary한 研究의 필요성과 기존 研究方法의 再評價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끝으로 그는 커뮤니케이션 研究에 哲學的 基盤造成이 아쉬움을 示唆하였다. Innis, McLuhan, Lasswell의 觀點에 연결되는 연구의 필요성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III

이상에서 이 책의 出版意圖와 體制 및 構成內容을 간단히 살펴 보았다.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은 커뮤니케이션科學의 近분야가 망라된 것이 아니라 매시 커뮤니케이션(특히 매시 미디어)을 중심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또한 美國의 여러 學者들의 關心에 의해 발간되었기 때문에 그 關心方向이 다분히 美國의 입을 고려하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각각의 論文에 引用된 수많은 論文과 著書 그리고 방대한 參考文獻에 일일이 접해 볼 수 없음을 더욱 그러한 점을 크게 느끼게 한 것도 같다. 그러나 여러편의 論文이 지나칠 정도로 단편적으로 많은 文獻을 인용하고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산만하다는 인상도 주는 것 같다.

한편 이 책의 기본 의도와 연결시켜 볼 때 研究領域뿐만 아니라 研究方法에 관해서도 그 傾向과 앞으로의 展望 및 提示가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다.

아무튼 이와같은 研究傾向의 分析과 再評價作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되었다는 점은 앞으로의 이 분야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이와함께 커뮤니케이션 研究의 世界的 研究傾向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研究가 앞선 다른 나라에 대한 이 책의 試圖와 같은 서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